

2005 PARA For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2005 파라장애아포럼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일시 : 2005년 10월 25일 (화) 14:00 ~ 17: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
| 주최 :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PARADISE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005 파라장애아포럼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식 순

사회 : 박 하 늘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연구원)

- 14:00 - 14:10 개회사
정 원 식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이사장)
- 14:10 - 14:40 발표 1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실태
-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
신 현 기 (단국대학교 교수)
- 14:40 - 15:10 발표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김 수 연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15:10 - 15:30 휴 식
- 15:30 - 16:00 발표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부모의 역할
노 석 원 (수원시장애인복지포럼 대표)
- 16:00 - 16:30 발표 4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소개와
향후 사업방안
김 광 선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운영실장)
- 16:30 - 17:00 질의응답

발표 1 신 현 기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실태 1
-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

발표 2 김 수 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25

발표 3 노 석 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부모의 역할 55

발표 4 김 광 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소개와 향후 사업방안 73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실태

-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I. 문제의 제기
- II.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그리고 편견형성의 요인
- III. 장애와 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
- IV. 결 론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실태

-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

영문학자인 한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미국 TV 토크쇼 중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다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언젠가 집중적으로 마리아 슈라이버(Maria Schreiber)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티미는 왜 저래? What’s Wrong with Timmy?》라는 책을 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자연스러워야 함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시간에 걸쳐 예화를 들어가며 윈프리가 소개한 이 책은 케이트라는 여덟 살짜리 소녀가 이웃에 새로 이사 온 소년이 혼자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 재는 왜 저래?”라는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운증후군으로 정신지체아동인 티미가 공놀이를 하는 모습이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모습이 여느 아이와 달랐기 때문이다.

엄마는 케이트를 티미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티미도 ‘너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네가 산수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듯이 티미는 무엇인가 배우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란다.” 엄마의 말을 이해한 케이트는 티미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농구를 하며 놀자고 제안,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도 가담해 모두 함께 어울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사실 하나도 새롭거나 재미있을 게 없는 도덕적 이야기지만, 영향력 있는 토크쇼에서 이 책을 다룬 것은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다. 직접 출연한 작가 슈라이버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즉 장애를 가진 친구도 공포나 놀림, 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임을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토크쇼 중에 윈프리는 탐 설리반이라는 시각장애인 사업가와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설리반은 절망과 자괴감에 빠졌던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은 단 세 단어였다고 했다. 어렸을 때 혼자 놀고 있는 그에게 옆집 아이가 “같이 놀래?(Want to play?)”라고 물었고, 그 말이야말로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임을 인정해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이었다고 했다 (장영희, 2005).



<그림 1> 나의 시선에 따라 소녀 아니면 마녀

I. 문제의 제기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지문 중 어느 지문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지문 1. “우리는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것들에 가치를 둔다. 다르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같다는 것은 편안함과 질서가 있는 것이다. 질서가 없는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서로 같거나 최소한 매우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고 느낀다.”

지문 2.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에 가치를 둔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보배로운 것은 그와 같은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대량 생산될 수 없다. 우리 자신들은 각기 고유하며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면 세상은 정말 끔찍할 것이다.”

사실상 어느 하나의 지문을 선뜻 택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남과 다른 독특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독특성 추구행위 자체가 그 시대의 유행이라는 통일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성과 통일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서구에 비해 다름에 대한 인정의 폭이 좁고 편견(또는 고정관념, 차별)을 생성하는 폭이 넓은 것일까?

장애는 비 장애 중심의 생활문화에서 보면 이질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이를 차이(difference) 또는 개성(character)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인 결과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여 장애를 차이가 아닌 차별(distinct)로 잘못 인식한 결과, 장애인들을 사회 속에서 심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물리적으로도 배척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척적 사고가 그들의 행위목록에서까지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장애라는 개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한결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종교·교육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사회적 구인(social construct)이라고 한다.

저명한 교육학자, 시인, 장애인 인권옹호자, 신문기자이자 한 때 미국정신지체협회(AAMR: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Burton Blatt은 사회적 구인으로서의 정신지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정신지체는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주제로 토론을 할 수도, 여러 유형으로 해부할 수도,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거나 연구할 수도 없는 그 밖의 무엇이다. 정신지체는 단지 우리의 인간성, 잠재력, 교육 정도, 평등성, 권리와 특권, 우리 자신의 모든 실체,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정신지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곧 나에게 당신은 영성이나 퇴폐성, 미 또는 추함, 강력한 힘 또는 나약함,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신지체는 결코 지능지수라는 기준이나 나아가 원인론적 설명(etiological description)이나 행동에 관한 사정평가 결과로 한정하여 요약될 수 있는 것도, 특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정신지체의 개념은 결국 다른 여러 사람들, 지역 사회, 가치체계, 기대, 그리고 희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Blatt, 1981).

결국 장애와 장애로 인한 편견이 사회적 구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형성 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서구의 요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편견은 기독교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한 편견을 배격하고 형평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construct community toward equity)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노력 특히 기독교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그리고 편견형성의 요인

1. 장애인에 대한 이해

우리들은 외국의 영화나 뉴스, 그 밖의 매체를 통해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하였지만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 팀의 유명한 조막손 투수 짐 애보트의 이야기,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인 스티브 호킹박사, 선천성 기형으로 가슴 밑 부분이 없는 소년 케니가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동네를 활보하는 이야기, 오래 전에 한국을 다녀간 일본의 오체불만족의 주인공 오토다케 등 장애인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선진국에서는 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스러우니 만큼 부자연스러운 것일까?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실례를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한 기자가 브라질로 취재를 갔다가 브라질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던 중 다리를 심하게 저는 한 브라질 노신사가 그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를 본 우리 외교관이 그 신사를 향하여 “Hey, cripple guy!(야! 절름발이 자식아)”하고 불렀다. 이 말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극히 경멸적인 것이었기에 그 기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자는 노신사가 칼이라도 뽑아들고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속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 노신사는 웃음 띤 얼굴로 다가와서 외교관과 인사를 하고는 기자와도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 노신사의 명함을 받아보니 그는 브라질의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절름발을을 그대로 절름발이라 부르고, 앓은뱅이를 앓은뱅이라 부른다 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호칭은 애칭에 해당되며, 그 사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장애인 관이 정착된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이 얼마나 잘 존중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은 장애인 동호회가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L.P.A.(Little People of America): 난장이 연합회
The Association to Aid Fat America: 비만 미국인 원호협회
외눈연합(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 장군이 명예회원으로 가입)
외팔이 상조회
목발 클럽

2. 장애인에 대한 편견

1) 장애인의 호칭에 나타난 편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에는 객관적인 멸시와 주관적인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음이 장애인에 대한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다.

난장이,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곰배팔이, 얼간이, 앓은뱅이, 머저리, 얼뜨기, 소경, 봉사, 장님

2) 문학작품과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을 경멸하는 듯한 표현은 우리나라의 문학작품이나 속담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몇 가지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저 춘향이의 거동 보소, 검은머리 집어 꽃고 때 묻은 저고리 의복현상 검게 하고, 짙신 짝을 감발 하고 바람맞음 병신같이 죽으러 가는 양의 걸음으로 석양 먼 하늘에 짝 잃은 원앙이요 봄바람 따스한 날에 꽃 잃은 나비로다”(古本 춘향전 중에서)

“부모를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의 몸통이도 그다지 값비싼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자기의 등 뒤에는 생명이라고 희생할 각오로 사랑해 주는 일영이가 있지 않은가 혜경이는 참으로 안팎곱사등이가 되어 움 치고 떨 수도 없었다”(심훈의 「탈춤」 중에서)

“있을 때 목간이라도 가면 수염난 놈팽이가 포장 위에 앉아 병어리 삼신인지 눈만 힐끔하고 돈이나 받을 줄 알았지 오느냐 가느냐 인사 한마디 한 법이 없다”(채만식의 「濁流」 중에서)

“고운데 없다”, “병신 달밤에 체조한다”, “병신 욱갑한다”, “언청이 통소 불듯”, “언청이 아니면 일색”, “대대 곱사등이”, “친구망신 곱사등이가 시킨다”, “앓은뱅이가 뭇 자랑하듯”, “병어리 입에 깻묵 쳐 넣듯 한다”, “장님들에게 눈 짓하고 병어리 귀에 속삭인다”, “소경은 죽어도 살인 빛 갚는다”

“장모는 사위가 곱보라도 예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애꾸라도 이쁜
다”

“열 소경에 한 막대”

“Hunch(곱추): 곱추의 곱사 등에 손을 대면 행운이 닥친다”

3. 장애인에 대한 편견형성의 요인

1) 한국 문화와 편견형성

복지에 대한 개념이 서구 지향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작용하므로 복지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간결하면서 함축적인 견해를 피력한 자료로 이규태(1981)의 자료를 들 수 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형성 요인으로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1) 보편인간의 지향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배경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는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동일성 가운데 하나로서 이질성을 배척하는 동질의식이 별나게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같은 민족으로만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땅에 수천 년 살아온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손꼽을 정도로 적으며 그런 민족일수록 이질성에 미숙하므로 자연스럽게 동질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동질의식이 강할수록 평균된 보편성의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며 평균과 동떨어진 이질의 개성 있는 것일수록 비 가치화한다. 물론 우리의 문화가 서구 지향적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특정 세대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동질성 위주의 문화가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람의 경우도 평균인간, 동질인간, 보편인간을 지향하게 되며 그 기준에서 이탈될수록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촌락단위의 정착된 농경사회는 동질의식이 되며, 이는 유교적 배경을 가진 농경사회의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농경문화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와 대자연이라는 강적을 상대로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했고, 일정한 시기에 씨 뿌리고, 못자리 만들고, 모심고, 김매고, 보 막고, 나락 베고, 나락들이고, 타작하는 그때그때의 적절한 시기에 한정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노동력 결집형으로 자연을 일구어야 했었다. 따라서 농경문화에서는 노동력의 창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즉, 오체구족(五體俱足)한 사람만이 그 시대의 보편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완전인간의 지향

개성을 평가하지 않는 보편인간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고루 갖춘 완전지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즉,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일품주의(一品主義)가 아니라 쓸모가 있거나 없거나를 따지기보다는 이것저것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한 세트로 구입하는 전품일절주의(全品一切主義)가 지배적이다.

곧 보편주의 사회, 완전주의 사회에 있는 장애인은 막스 쉐러의 보편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개별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에 항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열등감을 갖도록 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게 된다.

(3) 욕구불만의 전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불만을 적절히 해소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건강치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요인은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메카니즘(방어기제)이 장애인에게 투사되어 편

견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나 대리물로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전위(displacement)라고 한다. 이러한 전이의 대상으로 흔히 장애인이 등장되었는데,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바로 이 같은 사회의 편견구조로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4) 초자아의 결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류애의 표현 정도는 유일신인 그리스도 신앙(信仰)의 유무와 그 정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올바른 기독교사를 지닌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에 의한 판단과 행동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준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의 판단기준이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다 같은 피조물이요, 죄인이며, 또한 구원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하여 편견의 대상이나 열등감의 소유자로 인식된다는 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초자아가 서구사회를 내 나름의 자기지향(自己志向) 사회로 발전시켰고,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신자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없는 한국사회가 남 나름의 타인지향(他人志向) 사회로 발전돼 왔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형성 요인으로 초자아의 결여는 설명력이 있다.

(5) 전통복지의 해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복지제도는 신라, 고구려, 조선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지방의 수령에게 이양되면서부터 각 수령의 재량권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제공되기도 또는 제공되지 않기도 했을 것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 됨에 따라 그 복지제도가 발전적으로 시행되어졌다기보다 쇠퇴해 갔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일면과 비슷하

다고 할 수 있다.

장애와 차별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이 같은 한국적 문화여건 때문에 서구의 장애극복 문화와는 다른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장애인에 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자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 공통성보다는 그 나라 그 민족 특유의 각종 동일성에 근거한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고정관념과 편견형성

우리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집단구성원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목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고정관념 중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일 경우, 그 부정적 감정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unreasonable) 경우, 이를 편견(prejudice)으로 간주한다(Ashmore & Del Boca, 1976). 이와 같은 편견에 관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하여 편견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주 대상 집단의 범주는 인종이나 성, 지역집단, 그리고 직업계층 등이었다(송관재 등, 2001).

특히 장애인은 주된 편견 대상 집단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을 그들의 생물학적 열등성(biological inferiority)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결코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다(Meyerson, 1988).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에게 불완전한 환경(disabling environment)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환경이 장애물이 되도록 한 것이다(Hahn, 1988). 또한 장애인은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기 때문에 다수집단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약 45%만이 자신들이 소수집단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Hill 등, 1986). 결국 다수집단의 논리로 인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비장애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이들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Taylor, Wood, & Lichtman, 1983; Lerner, 1980).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희생들로는 그들의 장애를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으로 낙인찍거나 이로 인해 비장애인들이 그들과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장기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을 갖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송관재 등, 2001. 재인용).

Ⅲ. 장애와 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

1. 장애인을 통해 배우는 교육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적 구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장애와 차별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사회의 구인을 형성하는 문화(culture)가 지금까지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일방성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기독교적 문화로 작동하거나, 적어도 장애인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모인 주일학교 초등부 1학년 반, 딱 한 아이만 아홉 살이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은 그 아홉 살짜리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애의 나이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좀 달랐다. 다운증후군이라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서 외모가 독특했다. 또 느린 행동과 낮은 지능

등 여러 특성이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구분 지었다.

부활절이 지난주일, 주일학교 선생님은 가운데가 벌어지는 플라스틱 달걀들을 가져와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새 생명'을 나타내는 물건들을 하나씩 골라 그 달걀 안에 넣어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 날은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그런 다음, 차례로 나와 달걀 안에 넣어 온 것이 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달걀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선생님은 그것들을 열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꽃을 담아 왔다. 아이들은 모두 새로운 생명을 보여 주는 그 아름다운 상징물에 "와~" 혹은 "어머~"하며 감탄했다. 어떤 달걀에서는 나비가 나왔다. 여자아이들을 "야, 아름답다"하고 말했다.

또 다른 달걀을 열자 작은 돌이 하나 들어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웃었다. 한 아이가 입을 열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돌멩이가 '새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몸집이 작은 한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그거 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꽃이나 나뭇잎, 나비, 뭐 그런 걸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좀 다른 돌멩이를 가져온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 달걀을 열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한 아이가 "불공평해요"라고 말했다고 또 다른 아이는 "멍청해요"라고 말했다. 그때 선생님은 누군가가 자기 옷을 잡아당기고 있음을 느꼈다. 그 아홉 살짜리 아이, 필립이었다. 필립은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거 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게 새 생명이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 날부터 필립은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다. 아이들의 환영을 받았고, 보통 아이들과 다른 모습들 때문에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았다. 필립의 가족은 그 아이가 그리 오래 살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작은 몸에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 해 여름, 필립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여덟 살짜리 소년 소녀들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행진했다. 아이들은 꽃을 들지 않았다.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은 사랑의 선물인 '텅 빈 달걀'을 친구의 관 위에 올려 주었다.

<폴 하베리(Paul Harvery)의 '텅 빈 달걀'>

위의 글에서 확인한 바와 장애인에 관한 인식은 장애이해를 넘어 근본적인 인간이해의 틀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편견극복을 위한 교육원리

1) 사람에 대한 교육적 준거

모든 인간에게는 개인차가 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에는 다섯을, 둘을, 하나를 맡기셨다. 이것은 “개인차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다섯을 더 남긴 사람과 둘을 더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다. 남긴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칭찬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각자를 절대적 존재로 인정하시어 자신의 능력만큼 성과를 발휘한 종들에게 “절대평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평가하신 것이다. 그러나 한 개를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온 후 받은 그 대로를 가지고 오자 호되게 야단을 친 후 한 개를 빼앗아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주님은 무엇인가를 남기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을 원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에 성취동기의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하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 절대적 존재자로, 성취동기를 부여할 존재로 인식하고 지도하는 기독교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편견극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에는 돈 다섯 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에는 돈 두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에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 두 달

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두 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런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도 않은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주었다가 내가 돌아 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여봐라, 저 자에게서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마태오 25: 14-30>

2) 사람에 대한 복지적 증거

주님께서서는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5번을 나가셨다.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하루 품삯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액수를 지불하였다.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이다.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의 항의는 당연하다. 그러나 주인은 그 항의에 개의치 않고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고는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다. 여기에 복음 지향적 형평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주님이 추구하는 세상은 출발점에 기준한 세상(현 세상)이 아니라 종착점(천국)에 기준한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후 다섯 시까지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이 병약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다. 현 세상은 ‘Equality’ 지향적이라면 천국은 ‘Equity’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홉 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열 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다섯 시쯤에 다시 나가 보니 할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렸다.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 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피약별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시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만큼의 삯을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마태오 20: 1-16>

IV. 결론

장애는 우리의 잠재적 삶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리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런 우는 장애인 가족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실태를 “함께 하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발점에 근거하기보다는 종착점에 근거하는 사고를 하여야 한다.

9살 난 형이 6살 난 동생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동생은 덩치 큰 형에게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달리기 시합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형은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 말이나 들어보고 거절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형이 가랑이를 크게 벌려 3걸음 앞으로 나간 후 그 지점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는 동생더러 그곳에서 뛰라고 하면서 자신은 원래의 자리인 뒤쪽에서 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동생은 잘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달리기 시합에 응하게 되었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형은 목표지점은 구령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동생의 몸 뒤에 바짝 붙어서 큰 소리로 발만 구를 뿐 동생을 앞질러 나아가지 않았다. 동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목표지점 한 발짝을 앞두고 먼저 목표지점에 손을 짚었다. 그러자 동생이 다시금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조르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것을 출발점 기회균등의 원칙(Equality)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가 동일한 목표지점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을 종착점 기회균등의 원칙(Equ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곧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이며 정상화의 원리는 아래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 1)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여 생각한 것들은 현실에 부합되는가?
- 2)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먼저 나 자신에게 적합한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적합한가?
- 3)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만약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라도 어색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는가?
- 4)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5)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의 발전에 확신을,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가?
- 6) 우리는 진정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를 원하는가?
- 7)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 8)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유한(有限)한 존재인 우리는 늘 유한이라는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곧 죽음(死)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곧 어느 날(一), 저녁(夕)에, 비수(匕)처럼 날아드는 것이다. 유한을 인식하며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낌의 마음이 필요하며, 그 느낌의 마음은 진정한 아버지(親)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나무(木) 위에 올라서서(立) 자식이 떨어질 때까지 바라보는(見) 것처럼...

참고문헌

- 낸시 설리반 쟁. 진정한 우정. 엘리스 그레이(김인화 옮김).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2. 서울: 두란노, 2003.
-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송관제. 이재창·홍영오.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제1호(2001): 119-136.
- 李圭泰(1981). 障礙者福祉에 대한 韓國人의 意識構造. 第3回 福祉社會 심포지움. **現代社會와 障礙者福祉**, 서울: 峨山社會福祉財團(1981): 50-69.
- 장영희(2005). **문학의 숲을 거닐다**. 서울: 샘터사.
- 폴 하베리. 텅 빈 달걀. 엘리스 그레이(마혜영 옮김).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2.

- Ashmore, R. D. & Del Boca, F. K.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D. A. Katz(Ed.). *Toward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1976.
- Blatt, B. *In and out of mental retardation: Essays on educability, disability, and human policy*.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81.
- Hahn, M. The politics of physical differences: Disability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4(1), 1988: 39-47.
- Hill, N., Mehnert, T., Taylor, T., Kagey, M., Leizhenko, S, et al. *The ICD survey of disabled Americans: Bringing disabled Americans into the mainstream*. New York :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Disabled, 1986,.
- Lerner, M. J. *The belief in a just world :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 Plenum, 1980.
- Meyerson, L. The social 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1948 and 1988. *Journal of Social Issues*, 44(1), 1988: 173-188.
- Taylor, S. E., Wood, J. V., & Lichtman, R. R. It could be worse: Selective evaluation as a response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983: 19-40.

↩ MEMO

↩ MEMO

↩ MEMO

 MEMO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김수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I. 들어가는 말: 차이와 다름에 대한 우리의 자세
- II.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 III. 맺는 말: 다름의 수용을 넘어 환영으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으로의 전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I. 들어가는 말: 차이와 다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사회와 정치적 맥락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최근에는 새롭게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장애’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시켜 나가고 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장애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의 개념은 장애에 대한 정의, 장애를 설명하는 모델들, 이론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장애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장애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 교육, 서비스의 전달방식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승희, 2004a). 장애개념이 영향 미치는 영역들은 진단평가, 예방, 처치, 교육과 지원, 법적인 보호, 국가 차원의 장애인 혜택, 장애관련 연구 등이다(Mercer, 1992). 실제로 교실에서 교사가 장애아동을 대하는 때 순간의 태도와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한 순간도 교사 자신의 장애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사가 장애를 개인이 입은 질병 또는 손상으로 ‘운명’적인 고정불변의 속성이라 생각한다면, 장애아동을 소개할 때 “애는 아픈 아이니까 잘 돌봐줘야 해.”, “이 아이 마음 속에는 아기가 들어있어.” 등으로 설명하게 된다. 장애를 개인 내의 문제로만 본다면 “아무리 해도 애는 지능지수가 이것 밖에 안되니 소용 없어”, “일반인들도 직장을 못 구하는데 이 정도 장애인이 어떻게 직업을 갖겠어”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거나, 생활연령에 적합한 교수를 하게 될 가능성

역시 희박해진다. 이와 같이 장애를 개인의 질병으로 보고 장애 문제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이 의학적 모델 혹은 개별적 모델인데, 이와 같은 관점이 사회 주류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지고 각종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들이 없어지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에 장애를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 장애(disability, 능력장애), 핸디캡(handicap, 사회적 불리) 3가지로 분류하였다. 2001년도에 한층 심화된 기능성, 장애 및 건강의 국제분류(ICF)에서는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병합시켜 손상,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의 역동적 상호 관련적 측면으로 장애를 보았다. 기존의 장애(disability)와 핸디캡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인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장애를 손상으로 인한 결과만으로 보는 일원적인 분류가 아닌 개인의 기능을 신체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과 참여라는 다원적, 총체적인 접근으로 개념이 심화된 것이다. 이는 장애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장애 개념의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장애아동의 개념을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아동, 2) 이로 인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3)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나 1)항에 속하는 아동, 4) 과거에 1), 2)항에 속해있었던 아동, 4)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았으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예, 학습부진 또는 행동문제로 인해 특수학급에 입급된 아동)으로 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장애아동이 통합된 학교, 통합된 지역사회에서의 평균적

인 삶의 질이 장애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에 비해 낮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교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일반교사와 일반아동의 인식이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Fenton, 1989).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분리된 환경에 실재한다면 자아개념이 낮을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성 기술의 발달을 제한하게 된다.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시 낮은 자아개념을 초래하게 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역시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장애인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Bronfenbrenner(1979)가 제시한 것으로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다섯 가지의 환경체계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가 있다. 이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아동 발달을 연구할 때 그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방대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는 아동 자신과 가족 뿐 아니라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생태학적 환경에도 해당되므로 다섯 가지 체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제시하겠다.

II.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1. 미시체계에서의 과제

미시체계에는 한 아동의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또래 집단이 포함된다. 한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 운동장의 시설물, 학교 도서관의 장서의 크기, 부모의 교육 수준, 교사의 정치적 신념, 또래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미시체계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옥분, 2003).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미시체계에서의 과제로는 아동의 가족, 친구 및 또래집단, 교사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의 가족

장애를 이해하는 개념적 틀 중 상호작용성의 생각의 틀은 장애아동을 상호작용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아동의 장애 정도와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데 동등한 책임자로 본다. 즉 장애아동의 문제 정도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한 가정에서 정인지체 자녀의 장애문제를 상호작용성 접근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와 다른 가족들의 인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장애를 이해하는 접근 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자녀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미래의 궁극적 기능을 전망하는데 기초로서 작용한다.

장애차별주의(handicapism, disablism)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 미치는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 수혜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Bogdan & Biklien, 1977). 장애아동 본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의 기회와 능력의 함양, 그리고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부모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과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2) 친구, 또래집단: 통합된 지역사회에서의 친구

지리적인 공간의 근접성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인이다. 장애아동이 이웃에 사는 또래와 함께 자라고, 같은 지역사회 학구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일반아동이 장애가 있는 친구를 ‘장애’아동으로 보기 전에 가까이 사는 동네 친구로 인식하게 된다.

3) 교사: 통합에 대한 신념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와 다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Heflin & Bullock, 1999).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역시 교사의 장애인관에 좌우된다. 기본적으로 교사는 장애를 개인의 속성, 성향으로 보아 개인의 비극적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출된 문제로 보는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실제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교육의 시작이 분리된 교육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 교육 기회의 확충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분리된 환경인 특수학교 교육의 질보다 통합 환경이 특수학급 교육의 질이 월등히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법적으로 통합교육이 보장되고 장애아동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움직임들이 통합교육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 직접적인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들은 실제 경험하는 통합교육의 성과 수준이 낮으므로 통합교육의 기본 원칙 및 철학에 대해서도 의구심과 혼란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통합교육의 성과 및 혜택들은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고,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중간체계에서의 과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즉 부모와 교사간의 관계, 형제관계,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포함되며, 새로운 친구집단의 형성이나 학교 입학 및 졸업 등의 행사를 예로 들 수 있다(정옥분, 2003). 장애인식 개선 과제와 관련지어 다음의 세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1) 통합된 환경에서의 교육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함께 실재하는 것만으로는 통합교육의 진정성이 보장되기에 한계가 많다. 장애아동과 다른 일반아동들이 ‘함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반 또래아동과 장애아동의 상호작용이 방과 후와 지역사회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Peterson & Hittie, 2003).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보다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생일잔치를 하거나 지역사회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또래와 함께 하기에 더 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 강조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지표로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지표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와 학급 내에서 가치있는 구성원자격(membership)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구성원 자격은 출석부에 표기된 이름, 게시판에 걸려진 작품, 사물함의 실재, 유니폼, 학급 앨범, 졸업 사진, 1인 1역의 담당, 청소당번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지표는 장애아동에게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나누는 또래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세 번째 지표는 장애아동이 제공받는 교육의 내용이 다른 모든 일반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계획되고, 조정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성인들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관계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야 한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종종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받는 관계로 묘사된다. 그런데 종종 교사들은 학급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도, 업무의 부담을 줄이려고 도와주는 관계를 격려한다. 교사는 장애아동을 잘 아는 아동이거나 장애아동에게 호의적인 한 아동을 정하여 장애아동을 잘 챙겨주라고 당부하거나, 아예 1인 1역 중의 하나로 장애아동의 ‘도우미’ 역할을 정하기도 한다. 아동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일반아동에게 장애아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다음 <표 1>은 Van der Klift 와 Kunc(1994)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 비교

개인적 범위	타인에게 도움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타인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능력	자신의 역량을 확인	결함이 은연 중에 드러남
가치	자신의 가치를 확인	부담감, 짐스러움이 드러남
지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	열등감이 드러남
책임	누군가에게 은인이 됨	누군가에게 빚을 짐
약점	약점을 가려줌	약점을 상기시킴

만약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대가를 받는다면, 책임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도와주는 이가 또래이고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반복된다면, 도움 받은 것에 대한 의무감은 값을 기회도 오지 않는 한 남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돕는 사람이라면 우월한 느낌을 경험할

지 모른다. 또한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감정들, 예를 들어 분개, 공정함의 위반, 관계에의 위협과 같은 감정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 도움의 방향이 한 쪽 방향일 가능성이 크지만 되도록 교육팀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장애아동을 도와주는 또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Colley, 2000).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촉진을 위한 접근을 할 때에는 되도록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은 장애의 여부라는 불변의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의된다.”(Janney & Snell, 1996, p.79)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 학급 및 학교의 분위기: 서로 배려하고 지원적인 공동체 문화

통합학교 및 통합학급의 분위기는 서로 돌보고 지원하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학교 환경이란 모든 학생이 소속되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든 학생의 욕구가 충족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배려하고, 지원적인 환경일 것이다. Shaffer와 Anundsen(1993)은 바람직한 공동체의 구성 요소를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바람직한 공동체라면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자신이 집단의 가치있는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둘째, 바람직한 공동체에서는 구성원자격이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정(accomodation)이 필요한 경우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분리된 공동체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집단화한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 조언, 배려를 제공받는다. 넷째, 바람직한 공동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감을 모두 갖는다. 통합학급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능력에 상관없이 학급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집단에서나 우선권 혹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바람직한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결정하기 위한 대화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다.

이러한 학급 및 학교의 분위기를 공동체 문화로 조성하는 것과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실 뒤 게시판에 몇몇 아동의 잘된 작품만 선정되어 게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의 작품이 협동작품의 형태로 게시되어 있다면, 그 게시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바로 ‘통합’인 것이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학급의 모든 아동이 존중되고 배려받는 학급의 분위기는 장애아동은 물론 어떤 아동들에게도 소속감과 가치로움을 느끼게 하는 좋은 환경이다. 나아가 장애아동이 통합된 학급에서 학급의 모든 행사와 일상에서 장애아동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그 학급을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협동이 아닌 경쟁과 서열을 강조하는 학급에서는 장애의 여부를 떠나 어떠한 아동도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저가치화 될 위험이 있다.

3. 외체계에서의 과제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위원회, 대중매체, 직업세계, 교육제도(방과후 활동) 친족지원망, 교회출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정옥분, 2003).

1) 대중매체에서의 장애인 묘사

TV,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장애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는지의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중매체에 나타난 장애인의 모습 역시 동정과 자비의 시혜자 또는 장애를 극복한 영웅적인 모습이 대부분이다.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의 모습을 그럴 때 고려해야하

는 첫 번째 원칙은 대중의 지원을 구할 때 동정에 기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의 제목인 ‘장애인 위로 간담회’를 살펴보자. 이는 장애인을 위로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로 ‘무료’를 강조하는 것도 주의 깊게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비장애인을 언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표찰, 전문용어,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급 정신지체인 000’, ‘시각장애인 000’ 등으로 한 사람을 지칭하면 안되고, 사람 우선(people first)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어도 정신연령이 낮다고 하여 어린 아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장애를 극복한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가 없었을 경우에 누렸을 일상을 사는 모습들(예, 시각장애인 요리강습 받다,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1일자)이 부각되어야 한다. 장애 극복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극복하기 이전의 모습이 불필요하게 과장되어 장애의 불편함만 강조되기 쉽고, 일반인들에게 사회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기사,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매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그들에게 말해지고 행해지는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2)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맥락적 특성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맥락적 특성은 환경의 위치,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제목이다. 고아이든, 장애아동이든 수용시설의 이름에는 실제로 천사, 소망, 사랑, 희망 등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03). 그러나 이와 같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초창기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이름이 사랑반, 소망반, 또는 유치원의 학급 이름과 같이 식물이름이나 동물이름이 붙여진 것 역시 적합하지 않다. 현재는 대부분 몇 학년 몇 반과같이 일반적인 반의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이다. ‘희망의 거북이 마라톤’과 같은 이름은 사회적으로 저가치화된 사람들의 행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명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답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지어야 한다. 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참여하는 행사라면 과연 ‘천사’, ‘거북이’와 같은 ‘특정한’ 이름을 붙이려고 할 것인가, 또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행사에 다른 일반인도 참여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명의 제시는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차별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지양해야 할 점이다(Bogdan & Biklien, 1977; UNESCO, 1989).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따로’ 마련된, 특별히 지어진 장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놀이캠프인 ‘도깨비 캠프’의 경우 초창기 시절, 특수학교의 운동장이 아닌 이화여자대학교의 운동장을 수련원이 아닌 관계로 장소를 빌리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 교사 양성 교육의 변화

공식적으로 통합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의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13개 초등교사 양성 기관(11개 교대, 이화여대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에서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

는 곳은 5개 교대 뿐이다(이대식, 김수연, 이은주, 신현기, 2004)). 법적인 규정과 정책이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면,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또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사립대학교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서도 통합교육을 준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사립대학교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수교육 일반, 각 장애범주별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합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반교사와의 협력관계, 보조원과 같은 준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자문과 지원에 대한 실제적 지식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특히 특수학급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교육과정과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하므로, 일반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도 특수교사 양성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4) 보조공학의 확충

장애인에게 보조공학의 제공은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필요할지라도 투자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보조공학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장애인이 현재의 인식 수준보다 좀더 유능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인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조공학의 확충으로 장애인 스스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지역사회 생활, 여가 생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스키 장비를 사용하여 스키를 타는 모습, 볼링장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램프시설을 이용하여 볼링을 하는 모습,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를 가지고 카드놀이를 하거나, 개조된 바둑판으로 바둑을 두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학교의 편의시설 확충이다.

4. 거시체계에서의 과제

거시체계에는 외체계와 더불어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되는 환경이다. 구성원들의 신념, 태도, 전통, 사회관습, 유행, 미의 기준, 의학지식,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정옥분, 2003).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거시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로 다양성 수용의 문화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다양성 수용의 문화 조성

최근 장애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차이 및 다양성 수용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장애이해교육이다. 일반학생과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장애이해교육은 주로 장애인의 날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장애, 장애인, 특수학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한 장애이해교육은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이해교육의 실행이 수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지나치게 ‘장애’에만 초점을 두고 장애를 부각시킨 결과 의도하지 않았던 역기능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개인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우던 한 아동이 오히려 장애이해교육 이후에 이름이 아닌 ‘장애인’으로 지칭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장애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성별, 외모, 능력, 민족, 인종, 문화, 가족구성원,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차이 등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인 능력의 차이로 장애를 보며, 차이로 인해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문헌들에서 나타난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

된 이원화된 집단의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발전되어 ‘모든 학생’, ‘다양성’, ‘학교의 재구조화’, ‘개별화된 지원’, ‘반응적인(responsive)’ 등의 공통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박승희, 2003). 즉 다양성을 가진 모든 학생들에게 반응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는 교육이 통합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곧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목표이자,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학생은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개인의 차이가 존중되는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

2) 다양성 수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

다양성 수용 문화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의 일반교육과정에 다양성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첨가, 보완하여 삽입 교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일반교육과정 내에는 국어, 사회, 도덕과 교육과정에 <표 2>와 같이 개인의 차이 수용 및 인권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김수연, 권택환, 2004). 국어 읽기 교과서의 지문에는 개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많았으며, 사회 교과서에는 인권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실과 교과서에서 가족의 역할을 제시할 때 가족 구성의 한 예로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삽화가 제시되어 있는 것 역시 장애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이 다양한 가족 구성 중의 하나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사례이다.

두 번째, 반편견 교육과정, 인성교육, 정서적 능력 함양 교육과정과 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박승희, 김수연, 2003).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편견과 고정관념 감소 활동, 민감성 증진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실행의 일부분은 보편적인 믿음이나 관습이라기 보다 자신만의 특별한 배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 수용,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2005)에서는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

는 우정' 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모든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와 유사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그 차이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및 친구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개인의 차이 수용 및 인권 존중과 관련된 내용 분석

교과	학년 학기 (쪽수)	개인의 차이 수용 및 인권 존중과 관련된 내용
생활의 길잡이	4-1(85)	집단 따돌림에 대한 토론
	4-1(93)	따돌림, 괴롭힘, 외모에 빗대어 놀림
	4-2(52-55)	성별, 능력의 차이에 따른 공정함
	5(64-65)	똥보, 멍청이 등 다른 사람의 별명을 부르거나 신체상의 특징 또는 능력의 차이에 대한 나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는 일이 아님
	5(62-63)	무시, 차별, 평등, 권리, 노약자, 동정심, 생명존중, 경로석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 권익과 관련된 용어 알기
	6(65)	법과 규칙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어린이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6(79-81)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생활의 중요성
사회과 탐 구	6-2(40)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는 학교
	6-2(62-63)	원손잡이 인권 보고서
읽 기	4-1 (102-106)	금간 향아리는 금이 간 것으로 인하여 외모와 기능면에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을 만나 자신이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쓸모 있는 향아리라고 생각이 변화는 과정의 이야기
	4-1 (114-118)	외모에 빗대어 욕을 하다가, 내면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짐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5-1(157)	엄마가 아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 것을 당부하는 편지글
	6-1 (151-156)	원손잡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논설문

3) 동화 및 교과서에서의 다양성 수용 문화

학령기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도서는 바로 교과서와 동화일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인 역시 대부분 봉사 및 도움을 제공받는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교과서의 삽화, 용어, 지문을 분석한 결과 장애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장애인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 비장애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의학적 관점에만 의거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권택환, 2004).

미국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사람과 장소(people and places)」(Scott Foresman Series, 2003)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그려져 있는 삽화가 4개이다. 이 삽화에는 시장, 공원, 박물관, 행사장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전 교과를 통틀어 과학 교과서(4학년 2학기)에 제시된 1개의 활동 제재뿐으로, 장애아동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아닌 일반학급의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일반학생과 토의를 하는 모습의 삽화이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교 및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의 삽화가 증가되어야 한다.

동화책에 나타난 장애인의 모습 역시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동화책에서는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으며, 소수의 책에는 지나치게 장애인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다(공진하, 2004). 즉 장애이해 또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동화책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 속에 장애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고, 시력이 나쁜 사람도 있고, 수화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뿐 만 아니라 다른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의 이

야기를 다른 동화책도 역시 쉽게 접해볼 수 있어야 하겠다.

4) 통합 프로그램의 신념 및 가치 설정: “모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교육적 성과를 목표로 세워야 한다. 일반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장애아동을 참여시키거나,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반아동을 오게 하는 프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 프로그램이 아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여가 서비스에 통합시키기 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행에서부터 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김수연, 박승희, 2000).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 통합 프로그램에서 장애아동만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활동을 준비한다면 일반아동들의 욕구를 고려하였을 때에 비하여 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생각하기 쉬우므로 일반아동에게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반면에 일반아동의 욕구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장애아동은 인지적, 신체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통합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욕구조사, 프로그램 계획, 모집, 홍보, 실행 및 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아동 또는 일반아동 어느 한 집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 및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모두 동등한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므로, 일반아동의 역할을 장애아동을 돌봐주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수교사 놀이연구회에서 실시하는 도깨비 캠프의 경우 프로그램의 모집과 홍보, 계획의 전 과정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가 참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제로 일반적인 캠프에 참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신설 운영되고 있다. 이 때에도 역시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모든”아동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거나, 기존의 일반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장애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 활용할 수 있다.

5. 시간체계에서의 과제

시간체계에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전학 등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가 시간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정옥분, 2003). 시간체계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 과제는 평생교육의 측면과 자연적 지원망의 구축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 접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 때에 장애인을 특별한 환경에서 집단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대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적인 (generic) 학교, 지역사회, 직업 환경에서 묶여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2001년 2학기부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이는 대학교라는 “새로운” 통합환경과 실제 지역사회 환경들을 교수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원의 한 수강생 자격권을 부여하고, 성인교육에서도 ‘통합’의 차원이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입증하였다(박승희, 2004b). 또한 앞으로는 평생교육원에 장애

인만을 위해 따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성인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일반인과 장애인이 동료 수강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을 위한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김수연, 박승희, 2000, 박승희, 2004b).

2) 자연적 지원망의 구축

많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제한된 사회적 관계에 포함된 구성원은 가족, 급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장애인, 또는 같은 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Amado, 199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도 확장되기 마련이다. 자연적 지원은 장애인이 속한 환경 내에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무급의 지원이다. 학교라면, 자연적 지원은 보조원이 아닌 학급의 담임교사와 급우들이어야 한다. 직업 환경이라면 직무지도원이 아니라 직장의 동료이고, 가정이라면 가족들과 이웃들이다. 장애아동이 교회에 출석할 때 개별 지도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웃의 형과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자연적 지원이다. 기존의 전문가, 준전문가로부터 제공되는 형식적, 유급의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미 존재하는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지원을 극대화하고 개발하자는 의미이다(Butterworth et al., 1996). 한 장애인의 성장에 따라 이와 같은 자연적 지원 망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 통합의 목적이자, 장애인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가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Ⅲ. 맺는 말: 다름의 수용을 넘어 환영으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으로의 전환

최근 장애인 서비스 분야를 이끄는 주요한 패러다임은 ‘지원’ 패러다임이다. 지원(support)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지원은 친구가 되는 것,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 동료로서 대우하는 것을 포함하는 좀더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지원적 인 관계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다양하다. 일반인들끼리의 관계도 항상 상호 호혜적이거나 균형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일방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인 관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 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곧 나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어떤 사람을 대 하는 원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나 대다수 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일치하는 정도가 낮더라도 괜찮은 정도가 아 닌, 차이를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차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장애인도 우리와 같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해주시시오’ 라고 주장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외의 사람들의 자세, 법과 제도, 서비스의 전달 방식과 내용들에 내포되어 있는 무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불러내야만 한다(Wolfensberger, 1998).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수용기관의 이름을 왜 아가의 집이라고 붙이는지, 장애가 없는 사람을 왜 정상인으로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나 자신과 우리 들에게 냉철하게 물어보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동화 를 당장 많이 만들어야 하는가. 전 국민 대상 캠페인을 벌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로 모든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장애체험 활동을 확대 실시하면 해결되는

가.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개념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오히려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더 심화시켜주는 것은 아닌지 시급하게 점검해야 하며,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입법,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장애인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진하(2004). 애들아, 우리 같이 동화책 읽자.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국립특수교육원 편, 제 5회 장애인인식 개선 세미나: **동화 및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 분석 및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pp.32-34).
- 김수연, 권택환(2003).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장애관련 내용 분석. **초등교육학연구**, 17(2), 471-497.
- 박승희(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 박승희(2004a). 장애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8(4), 27-66.
- 박승희(2004b).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및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9(1), 39-75.
- 박승희, 김수연(2003). 정서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 장애를 포함한 개인의 다양성 이해 촉진의 한 접근. **정서행동장애연구**, 19(1), 139-161.
-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2005). **서로 다른 아이들이 만드는 우정: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이대식, 김수연, 이은주, 신현기(2004). 교육대학교에서의 통합교육 담당교사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67-87.
- 정옥분(2003). **아동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3). **전국 특수교육 요람**. 경기도: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Amado, A. N.(Ed.). (1993). *Friendships and community connections between people*

-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 Bogdan, R., & Biklien, D.(1977). Handicapism. *Social Policy*, April. 14-19.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utterworth, J., Hanger, D., Kiernan, W. E., & Schalock, R. L.(1996). Natural supports in the workplace: Defining an agenda for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1(3), 103-113.
- Colley, K. M.(2000). Approaches for facilitating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In R. Janney & M. E. Snell(Eds.), *Social relationships and peer support*. Baltimore: Paul H. Brookes.
- Fenton, M.(1989). *Passivity to empowerment*. London: RADAR.
- Heflin, L. J., & Bullock, L. M.(1999). Inclusion of students with emotional/behavioral disorders: A survey of teachers in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Preventing School Failure*, 43, 103-111.
- Janney, R. E., & Snell, M. E.(1996). How teachers use peer interactions to include students with moderate and severe disabilities in elementary gener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1, 72-80.
- Mercer, J. R.(1992). The impact of changing paradigms of disability on mental retardation in the year 2000. In L. Rowitz(Ed.), *Mental retardation in the year 2000*(pp. 15-38). New York: Springer-Verlag.
- Scott Foresman Series(2003). *Social studies: People and places*. Illinois: Pearson Education.
- Shaffer, C., & Anundsen, K.(1993). *Creating community anywhere: Finding support and connection in a fragmented world*. New York: Putnam.
- UNESCO(1989). **장애인에 관한 사회인식 핸드북**.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Van der Klift, E., & Kunc, N.(1994). Beyond benevolence: Friendship and the politics of help. In J. S. Thousand, R. A. Villa, & A. I. Nevin(Eds.), *Creativity and collaborative learning: A practical guide to empowering students and teachers*(pp. 391-401).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WHO(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A manual of classification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disease. Geneva: WHO.

WHO(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adopted at the fifty-fourth world health assembly. *Agenda Item, 13.9*, 22 May.

Wolfensberger, W.(1998). *A brief introduction to Social Role Valorization: A high-order concept for addressing the plight of societally devalued people, and for structuring human services*(3rd ed.).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Training Institute for Human Service Planning, Leadership & Change Agency.

↩ MEMO

↩ MEMO

↩ MEMO

↩ MEMO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부모의 역할

노 석 원 (수원시장애인복지포럼 대표)
(전) 수원시장애인부모회장

- I. 들어가며
- II.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
- III. 부모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역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부모의 역할

I. 들어가며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식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학령기에는 학교에서, 학령기 이후에는 사회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게 해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대한 바람은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욕구와 다를 바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미약하나마 우리 자녀와 부모들에 대한 사회인식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에 대하여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사회일반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금씩 가져온 변화가 누적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9세 된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지난 3년 동안 수원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부모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대하여 그동안의 상황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 또한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 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을 첫째,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부모들의 역할과 둘째, 부모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역할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II.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

1. 이제는 방법을 알려줄 시기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선 지금 그동안 자기 자신, 자기 자녀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던 국민들이 이제는 시야를 조금은 넓혀서 자기 이웃, 특히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자세는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단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피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장애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며 차선책으로 방송 매체 등을 통하여 간접경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장애인수영선수 김진호군의 이야기,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배형진군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간접경험을 하게 됨으로서 많은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경험이든, 간접경험이든 비장애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적극적인 자세라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께서 정작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가족을 출연자로 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는 제의가 들어온다면 과연 그 반응은 어떨까요. 모 방송국 PD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출연자 섭외라는 이야기는 부모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 위에서부터의 변화

작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초, 중, 고 특수학급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특수학급 연합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회 캠프 때 직접 캠프에 참여하셨던 교육장께서는 그동안 특수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만 캠프에 참여하신 후 당신께서 많은 것을 느끼셨고, 며칠 후 열린 교감회의 석상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캠프 때 느끼신 바를 이야기하셨으며, 차기 캠프부터는 해당학교 교장선생님 모두를 초청하자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위에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공통된 요구사항 중 하나가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 관리직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연수가 힘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3. 더불어 함께

제가 살고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등 장애인전용시설이 아닌 일반청소년수련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의 목적은 우리자녀들의 건강증진과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가지라도 익혀주고자 하는 생각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본래의 목적 외에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영장의 직원은 물론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비장애 일반회원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어 심지어는 자원봉사자가 모자랄 경우 언제든지 지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장애인전용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시설의 요구는 장애인전용시설이 아니면 안되는 최소한의 선에서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모든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장애인 전용수영장 한곳을 건설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수영장에 편의시설을 해주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예산 면에 있어서도 훨씬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입니다.

4. 먼저 알리고 나중 나무라기

3년 동안의 부모회장 기간동안 지역사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가족들의 경우 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조차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서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 달라. 알면서 못하는 것은 야단맞아 당연하겠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속으로 불평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가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져야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개인의 입장에서 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것이며 이런 역할을 누군가 대신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의 조직적인 모임과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Ⅲ. 부모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역할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먼저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에 앞서 가정 내에서의 장애자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장애아동의 부모입장에서 사회전반적인 장애인식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안에서의 장애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우리자녀들에 대한 인식은 결국 선생님과 부모 간에 어떤 관계를 설정, 유지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부모님들께서 최근 많이 높아진 우리자녀와 부모님들의 권리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립하는 등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우리자녀들의 행복과, 이를 통한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한 삶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남편의 이해

요즘 들어 장애아동을 키우는 많은 가정에서 아버님들이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부 가정의 경우 어머니께서 “아이들 문제는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현실입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한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아이는 물론 아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겪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집에서 부인에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같은 입장의 다른 아버지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경우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머님 못지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으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버님들의 경우 어머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의 장애자녀나 다른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과의 교류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님들께서 확실하게 어머님과 하나가 돼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다른 가정의 장애자녀나 그 부모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어머님들의 슬기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비장애자녀들의 이해

일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초, 중학교 과정의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형제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너희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70-80%는 “나중에 결혼하고 돈 벌면 2층집 지어서 한 층에는 자기 부부가 살고, 나머지 한 층에는 부모님과 장애형제자매와 함께 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심지어는 장애형제자매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겠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때 당시 부모입장이시면서 강사를 맡아주셨던 분과 저의 생각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는 나름대로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다만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길 때 장애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형제자매가 부모가 그들에게 바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부모가

비장애 자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자녀가 도움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학교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하던 우리 자녀들이 장애라는 한계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자녀들이 늘 도움만 받는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고3인 저의 자녀가 특수학급이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1학년 학생이 쓴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내 짝이 장애인인데 함부로 침을 뱉고, 간혹 나를 못살게 군다. 우리 학교가 특수학교도 아닌데 왜 이런 친구가 우리 반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다니기가 싫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했지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장애친구를 이해할 만한 내용의 답글을 올려놓았는데 제 글에 대하여 며칠 후 3학년 학생이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처음 글을 쓴 친구가 1학년이라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3학년이 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가수 강원래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1학년 학생을 교육시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 들을 보면서 1학년과 3학년의 단순한 나이 차이에 따른 생각의 변화가 아닌 3년 동안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같이 교육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비장애학생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장애 학생들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선생님과의 신뢰

우리가 자녀를 맡긴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특수교육을 전공하셔서 학교현장에서 우리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의 부모이지만 일단 학교 안에서는, 특히 특수학급인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우리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비장애학생이나 일반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부모간의 신뢰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자녀들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생활모습이 가능한 집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5. 선생님과 학교 간 비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다 똑같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큰 틀이야 같겠지만 같은 교수님으로부터 특수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께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도 각 선생님들의 교육철학, 소신, 개성 등에 따라 얼마든 다른 방법에 의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의 지원 역시 아직은 법의 강제성이 취약하고, 정부의 일률적인 예산지원이 없어 각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인터넷의 발달, 부모회 모임의 활성화 등으로 부모님들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각 학교, 각 선생님의 모습을 부모님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어느 선생님은 이렇고, 어느 학교는 이렇고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들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선생님이나 학교를 상대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선생님의 교육철학, 소신, 개성에 따른 교육방법을 해당 학교 선생님께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산지원 등(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된 급식비등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 간 비교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내지는 각급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6. 시기에 맞는 교육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보면, 특히 초등학교의 학령기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인지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지교육을 통해서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인지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 이후에는 직업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잘못하면 정작 학령기후의 직업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서 효과적인 학령기 후의 대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인지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기를 원하셔서, 즉 공책에 적혀 오는 것만이 교육이라는 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중학교 이상의 학교선생님들께서 정작 직업교육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작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7. 선생님의 나이

초등학교라면 몰라도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의 경우 선생님들 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나이가 당신보다 적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 은근히, 아니면 확실히 말을 놓고 이야

기 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도 부모님 스스로가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자녀들 교육에 애를 쓰시는 선생님들께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더욱 지치고 힘들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8.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이 지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저학년 부모님들의 경우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학년이 될 수록 학교에서의 알림장을 소홀히 해서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개학날을 깜빡하고 개학날 학교에 못 보내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때는, 제가 지금 닥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학령기를 마칠 무렵인 고 2-3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도 사람인지라 어느 한 때 너무 힘을 쏟게 되면 탈진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은 육상으로 치자면 가장 먼 거리인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마라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 조절이고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 어느 한 구간에서 무리하게 되면 그 경기에서 결코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에 기권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 돈과 자존심

2-3년 전 수원에서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영경기대회는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주최를 했고 저희 부모회에서는 몇몇 분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수와 자원봉사자에게 줄 용도로 준비한 기념

품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1회 대회여서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수원지역의 장애인단체장들을 초청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이 끝난 후 단체장중 몇 분께서 기념품을 요구하셨고, 연맹에 확인해본 결과 여유분이 없다고 하기에 단체장께 사정 말씀을 드렸더니 결코 유쾌하지 않은 얼굴로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부모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을 제외하고는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지불을 해야 하는 유료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당당하게 우리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학령기 때 필요한 많은 부분이 정부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와 우리자신이 보다 떳떳하게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MEMO

↶ MEMO

↩ MEMO

↩ MEMO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소개와 향후 사업방안

김 광 선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운영실장)

- I. 장애인식개선 사업현황
- II.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향후 방향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소개와 향후 사업방안

I. 장애인식개선 사업현황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파라다이스그룹을 모기업으로 1994년 설립된 이래 기업의 공익재단으로는 유일하게 장애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치료, 복지 향상을 목표로 특성화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장애인식 개선 관련 사업은 1. 풀뿌리 단체 지원 사업 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방송 및 캠페인 지원 사업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자료개발 사업 4.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1. 풀뿌리단체 지원 사업

자발적으로 형성 운영되는 풀뿌리 단체 운동(Grass roots movement)을 지원하는 풀뿌리단체 지원은 소규모의 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사업의 내용도 매년 향상되고 있다. 지원된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1. 좋은 엄마되기 자조모임 지원, 2. 장애-비장애 통합미술활동, 3.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4. 장애-비장애 통합캠프 등이다.

<표 1> 풀뿌리단체 지원 현황

(단위: 원)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내역	20단체	30단체	15단체	15단체	10단체	34단체
지원금액	36,081,300	60,539,000	26,588,500	30,350,000	25,814,400	30,000,000

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방송 및 캠페인 지원 사업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라디오 및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바로잡고, 올바른 장애인식 확산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재단은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하는 통합 캠프, CBS 콘서트, 에이블 아트 포럼 등의 이벤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재단이 주최한 에이블 아트 포럼은 장애인들에게 예술이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장애인 예술 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 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2> 방송 매체 제작 지원 현황

년 도	사 업 명
2001년	장애인의 날 평화페스티벌 1부/2부 제작
	MBC TV 세계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케냐로 간 사람”제작
	SKY KBS Sport “장애인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참여(one korea)”제작
	SKY KBS Drama ”교우관계에서 본 장애아동 평등권(Friend Ship)”
2000-2001	파라페스티벌 개최
2004년	CBS방송 “희망 Plus U” CBS콘서트
2000년 ~2004년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파라캠프”
2005년	CBS방송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걸음”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자료개발 사업

1)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교실” 출판 (1998)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교실”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일반 교사들이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1998년에 만든 교수 활동집으로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자료집이다. 이 책의 간행 이후 유사한 통합 교육 관련 교수활동집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현장에서의 통합 교육 실행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서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에게 질문하는 내용들, 학생 들이나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아 질의 응답하는 부분과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영화나 도서 등의 관련 자료들, 통합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타 특수교육 정보를 정리하였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교사만 아니라 특수 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90% 이상이 특수교육적 지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5년 7월 교육인적 자원부가 발표한 <2005 특수교육실태조사서>를 보면, 전일제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 2만3529개 학급 중 7.9%인 1879개 학급만이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가 맡고 있으며 전체의 90%가 넘는 2만1650개 학급의 교사들은 특수교육 배경이 전혀 없이 장애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을 담당할 일반교사들과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의 장애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서울경인지역특수학급 교사 연구회와 함께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교실”을 만들어 전국에 무상으로 배포 하였다.

2) “또 다른 친구” 제작 출판 (2004.4)

“또 다른 친구”는 일본 최초의 자폐성 장애 공무원 테츠유키의 일화를 성인이나 아동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만화책으로 제작한 것이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 총 3만권을 전국 특수학급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였고, 만화의 주인공인 테츠유키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4.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2004년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장려·지원하고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함께하는 사회, 편견 없는 사회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 장애인식개선지원사업을 위해 총 159개 지원 단체 중 9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총 174개 지원단체중 6단체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3>

(단위: 원)

년 도	사 업 명	지원금액
2004년	“함께하는 사회 편견 없는 사회만들기 I”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46,665,000
2005년	“함께하는 사회 편견 없는 사회만들기 II”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21,360,000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 및 지원 및 파라포럼	81,000,000

<표 4> 2004 ~ 2005 “함께하는 사회 편견 없는 사회 만들기“ 지원현황

년 도	구 분	사업명	선정 기관
2004년	프로 그림 지원	“천천히..우리 함께해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
		시각장애인의 동화구연을 통한 유치원 아동과의 만남, 그 사랑이야기	하상장애인복지관
		제 2회 우리 더하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디카로 본 세상” - 발달장애 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디지털 카메라 매체를 이용한 동아리 활동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꿈을 빛는 사람들’	죽전직업재활원
	영상물	“아이들 눈에 비춰진 세상” - 장애인 식개선 작품공모전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우리도 당당한 사회인” - 장애인 자립현장을 찾아서”	위드뉴스
	자료 개발	‘장애학생에 대한 중등학생의 태도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부산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그림책을 활용한 아동의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서일대학 유아교육과 양승희
2005년	프로 그림 지원	“아하, 이제 알았어!”- 장애를 가진 내 친구의 성행동 이해하기	한국발달지체인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 프로그램’	한국재활복지대학
		“사랑 가꾸기”- 일반아동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동화구연 프로그램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뽕뽕소리(x)번쩍번쩍(0)”- 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 파라다이스 만들기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이동하기 편한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개나리는 노란색-가야대동아리
		“VJ특공대 세상속으로”-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소년들의 장애인식 다큐멘터리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II.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향후 방향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향후 재단 사업의 핵심 테마를 “장애아동과 놀이”, “장애아동과 예술”, 그리고 “장애아동과 테크놀로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재단이 실시하게 될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재단 사업의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놀이”와 “예술”영역에 중점으로 두어 “장애아동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 만들기” 그리고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아동들의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재단 내 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애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준비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 장애인식 자체 연구 프로젝트의 예

1. “Kids on the Block(우리 동네 아이들)” 프로젝트

Kids on the Block은 1977년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아 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 프로그램 회사의 이름이다. Kids on the Block은 지난 28년 동안 장애아 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 보급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였다. 현재 미국에만 1600여개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Kids on the Block” 인형극 팀이 활동 중이며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에서 “Kids on the Block”을 수입하여 활발히 사용 중이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kids on the block 인형극을 국내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장애/비장애아 통합 놀이 캠프” 지원 프로젝트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회성을 키우게 된다. 앞서 소개한 kids on the block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인형극”이

지니고 있는 놀이적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놀이는 아이들의 전 인적 발달과 배움의 과정에 중요하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 캠프의 모델들을 발굴하고 연구/지원하여 그러한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인터넷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아이디어 또는 조형활동, 음악활동, 동작예술 활동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등도 좋은 주제라 하겠다.

놀이, 예술,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한 재단의 향후 장애인식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부록

1) 2004년 선정 지원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사례

[사례 1]

■ **사업명** : “디카로 본 세상” 발달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디지털카메라 매체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

■ **단체명**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 **사업간략소개**

발달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디지털카메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며, 발달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 사업 효과성

(1) 강점관점을 활용한 통합동아리의 모델 제시

- 기존 통합동아리가 장애청소년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장애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놀이나 야외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인 것에 반해, 디지털카메라 동아리는 발달장애청소년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였음
- 그동안 발달장애청소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짧은 집중력과 한정된 시각을 디지털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발달장애청소년들은 독특한 시각을 사진에 담아 비장애청소년과 어울려 동아리활동을 함으로써 통합 동아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음

(2) 발달장애청소년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청소년의 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디지털카메라 동아리는 장애청소년의 여가활동 거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일부 성원들은 정기활동 이외에 가정에서 좋아하는 물건을 촬영하거나 친구 얼굴, 관심 있는 사물(컴퓨터, 강아지 등)을 촬영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가정이나 학교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

(3)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사회통합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활용한 야외실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능력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청소년에게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

[사례2]

- **사업명** : “아이들 눈에 비춰진 세상” -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작품공모전

- **단체명**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간략소개

본 작품공모전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 지향을 위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였음

■ 사업 효과성

(1) 초등학생들 측면

- 아이들이 작품 속에서 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는 장애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며 앞으로는 장애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장애친구에 대해 ‘애자’라고 놀리고 구박만 하던 아이들이 장애친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됨
- 사생대회의 경우에는 장애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다른 사생대회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부모님과 선생님도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어른들의 행동을 가장 많이 모방을 하며 배우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를 유발함

(2) 학부모 측면

- 부모님의 경우에도 관심도가 높아 특히 수상한 아이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의 작품을 보면서 본인도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 복지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3) 학교 측면

-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신문에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게재하기도 하며, 복지관에서 시상식을 한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조회시간에 수상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

(4) 통합적인 측면

- 본 사업을 통해 보게 된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초등학생들이 아직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과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많은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음
-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체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초등학생들이 몸으로 느끼는 참교육이 되었음

[사례3]

■ 사업명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프로젝트”

- 시각장애인의 동화구연을 통한 유치원 아동과의 만남, 그 사랑이야기

■ 단체명 : 하상장애인복지관

■ 사업간략소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미래지향적 접근(유치아동)을 통한

인식개선 도모 및 고정관념화한 시각장애인 직종 탈피 및 새로운 모델 제시를 통한 긍정적 인식기반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음

■ 사업 효과성

(1)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에게는 자신이 배우고 연습한 동화구연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유치원아동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반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
- 동화구연가라는 직업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봉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려고 시도함
- 서울시보육시설장 연수에 참가하여 동화구연 특별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동화구연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후 동화구연 파견에 대한 발판을 구축함

(2) 유아아동

- 유아아동들은 동화구연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을 접하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에게 발표를 할 때는 손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는 등 행동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시각 장애인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이야기 해주는 과정에서 유아아동들이 무척 재미를 느끼며 시각장애인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
- 아동들이 유치원에서 들었던 동화구연을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 유치원 부모들에게 시각장애인 동화구연선생님이라는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부모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변화를 줄 수 있었음

(3) 유치원 및 보육시설

- 유치원 측에서는 아동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도를 해야 할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추후 유치원에서 이러한 장애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장애인식 영상물 지원사업

[사례4]

- **사업명** : “장애인, 우리도 당당한 사회인 - 장애인 자립현장을 찾아서”

- **단체명** : 위드뉴스

- **사업간략소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립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생활, 자립생활 코디네이터, 목공예가 등 3곳의 장애인들을 개별 영상으로 담아 직업의 가능성과 함께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적 가능성, 비장애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전문성 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실제적으로 담아냈음

■ 사업 활용방안 및 효과성

(1) 사업 활용방안

- “장애인, 우리도 당당한 사회인 - 장애인 자립현장을 찾아서”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직업생활 관련 영상물 60분 분량을 장애인인터넷방송 위드TV를 통해 인터넷방송의 특성을 감안해 20분씩 3개로 분리하여 방영하고 있음

(2) 사업 효과성

- 온라인 방영을 통한 인식개선영상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음
-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영상물 제작의 동기화가 되었으며, 추후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범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3) 장애인식 자료개발 지원사업

[사례5]

- **사업명** : ‘그림책을 활용한 아동의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 **단체명** : 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양승희교수팀

■ 사업간략소개

만 5세 비통합 유아교육기관 일반아동(교육집단)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루는 주제에 따라 하루 일과운영 속에서 장애 인식태도, 장애 수용 태도(친사회적, 공유 활동, 문제 상황 해결), 놀이 행동(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향상을 위한 활동 요소가 통합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사업 효과성

(1) 비장애아동의 장애수용태도 및 놀이 행동 향상

- ‘그림책을 활용한 아동의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자료는 평가결과 교육집단(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투입된 집단)이 비교 집단(기존의 정규적 프로그램이 진행된 집단)보다 장애 수용 태도(친사회적, 공유 활동, 문제 상황 해결), 놀이 행동(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에서 모두 향상되었음

(2) 새로운 유아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 및 방향성 제시

-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인식 태도, 장애수용 태도 및 놀이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통합 유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통합 및 비통합 유아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통합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MEMO

↩ MEMO

↩ MEMO

↩ MEMO

2005 파라장애아포럼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005년 10월 20일 인쇄
2005년 10월 24일 발행

발행인 : 정 원 식

발행처 :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39
Tel. 02-2277-3296(연구소 내선#2)
Fax. 02-2277-3124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 Fax. 393-3016